권역별 국산 밀 제분 시설 구축 속도 고양

농진청, 내년까지 중소형 제분 시설 5곳 개소… 국산 밀 산업 활성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산 밀을 전문으로 제분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국산 밀 산업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산 밀을 전문으로 제분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국산 밀 산업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기준 1.3% 수준인 밀 자급률을 2027년까지 8%까지 높이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가 연계된 국산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산 밀의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 수입 밀과 차별화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비축밀 수매 시 품종 순도 등 품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제면용과 제빵용 품종별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품질 등급별 수매제도를 시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고품질 국산 밀가루 생산 및 공급 기반이 부족한 국산 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2년부터 5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을 조성해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제분 시설은 하루 7톤 이상 제분이 가능한 중소형 규모로 하며, 제분 시설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100헥타르(ha) 이상 국산 밀 재배단지를 조성해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입 밀가루와 경쟁할 수 있는 용도별 고품질 국산 밀가루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해 지역특화 먹거리 제품개발, 상표화(브랜드화)로 국산 밀 수요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4일 오후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을 찾아 경북지역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 준공을 축하하고, 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권 청장은 "국산 밀은 생산 여건이 불안정하고, 수입 밀과 차별화한 품질 경쟁력 부족으로 용도별 구분 없이 유통되면서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을 주축으로 업체와 소비자 요구에 맞는 국산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을 고급화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소비 촉진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2029년까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밀 숙기 단축, 물관리, 밀 중심의 재배 체계와 시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수확 후 저장·유통 품질관리 기술, 품종 및 용도별 가공 이용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의료기기 멸균처리기기 개발에 성공한 ㈜스터리바이오코리아가 120억 원 규모 김의 투자를 약속했다.

남원,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

스터리바이오코리아, 120억 투자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의료기기 멸균처리기기 개발에 성공한 ㈜스터리바이오코리아가 120억 원 규모 김의 투자를 약속했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도와 남원시, 스터리바이오코리아는 남원일반산업단지(4,700평)에 의료기기 멸균처리기와 진단키트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스터리바이오코리아의 정우형 총괄 대표를 비롯해 중국 스터리바이오사의 조쯔이 사장과 아몬메드사의 양성 부사장이 함께 참석해 기술과 자본의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스터리바이오코리아는 중국 스터리바이오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멸균분쇄기 소형화에 성공했다.

최신 미약 음압 장비가 적용된 멸균처리기는 안전성을 극대화했으며, 내년 10월까지 남원에 생산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의료기기 멸균처리기뿐만 아니라 중국 아몬메드사와의 협력으로 폐렴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체외 진단키트도 개발·생산할 계획이다.

정우형 스터리바이오코리아 총괄은 "남원은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순천-완주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뛰어난 지역으로, 저렴한 주거비용과 훌륭한 공공서비스가 갖춰진 점에서 최적의 입지"라며 남원을 투자처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그린바이오를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 중"이라며 "이번 투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315억원 지원… 접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 규모는 총 315억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0억원, 벤처기업 육성 자금 65억원, 경영 안정 자금 150억원이 포함된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13억원까지 저리 융자가 제공되며, 평균 2.68%의 대출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자금별 신청 기간과 융자 한도, 금리지원은 상이하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되며, 시설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5.0%로 설정되며, 도에서 2.18%의 이자를 지원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는 2.82%이다.

벤처기업 육성 자금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되며, 기업당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5.0%로 도에서 3.18%를 지원하면 기업에서는 1.82%의 이자를 부담한다.

경영 안정자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기업 5억원)을 지원하며, 시중은행 변동금리에 도에서 2~3%의 이자 지원을 통해 기업은 나머지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연말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11월과 12월에 추가 접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단, 분기 자금이 소진될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8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ok.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진행되지 않는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으로 연락하면 된다.

송주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개공, 전주만성에코르2 단지내 상가 4호 분양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전주만성에코르 2단지(830세대) 상가 4호를 입찰(분양)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7일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https://onbid.co.kr)를 통해 공개되며, 14~17일까지 4일간 최고가 낙찰제로 입찰이 진행된다.

전주만성에코르 2단지 상가는 총 7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호는 2022년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잔여상가 4호는 2024년 9월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분양가격으로 공급된다.

분양 공고문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주거복지처(☎063-280-74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주만성에코르 2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80(만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59㎡ 83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022년 10월 입주완료 하였다.

이번 분양은 전주만성에코르 2단지의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 기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하반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 해결을 위해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바이오진흥원 및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헌혈 캠페인은 지역 내 혈액 수급 안정화뿐만 아니라 혈액 기부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표로 지역사회 협력과 나눔 문화를 촉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진행되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진흥원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캠페인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